

양무리, 주보금, 사무엘 선교사 기도 편지

2020. 5.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 6:1)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도전 앞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고난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힘내어 승리의 날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12일 터키로 출발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한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터키정부는 3월 1일부로 한국 발 모든 비행기를 막았습니다. 결국 발이 묶인 저희 가정은 전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로 드리며 저희의 근황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훈련원 사역을 마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선교회 43기 국내 훈련을 마지막으로 훈련원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2월 훈련원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지난 12여년의 국내외 바울선교회 훈련원 사역의 직임을 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정과 함께 기도하며 섬겨 주심으로 훈련원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따라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 떠나는 것은 저희 가정이 누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것은 저희 가정과 남은과업인 T국을 섬기기 위해 함께 일하신 동역자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T국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빚겨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월 초 만해도 빚장을 걸어 잠그며 코로나19의 전염을 막아보려 했지만 3월 11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자가 12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천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72시간 통제 내지 48시간 통제를 통하여 사회적 전파를 차단하려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집회가 금지되어 식당과 학교는 물론이고 20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사람은 외출할 수 없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무슬림임에도 모스크를 폐쇄하여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조치 덕분에 증가의 숫자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2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터키 땅에도 부어 주시 코로나19가 멈추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라마단 기간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알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국과 같

이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임에도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느 해와 다른 상황과 형편 가운데 라마단을 보내는 무슬림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희 가정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국에 차질이 생기며 저희 부모도 혼란스럽지만 아들 사무엘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라는 적절한 통제와 관리 체계 없기에 매일매일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는 힘든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선교지로 나가기 전까지 신앙과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대안학교를 찾았습니다. 진안에 있는 이랑학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을 함께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4월 중에는 원격으로 수업을 하였고 5월 4일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랑학교에 잘 적응하며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을 따라 신앙과 학문을 잘 배우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본부사역을 하면서 살았던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정리하여 떠나기 전까지 머물 임시 거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출국 전까지 머물기로 했던 집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희에게 본부와 훈련원 후임 선교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좀 더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안정되고 언제 출국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마냥 있을 수 없어 이사를 결정하고 머물 집을 구하는 가운데 전주제자교회에서 제공한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훈련원 사역을 마치고 분주하게 선교지로 출발을 준비하던 저희 부부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 뜻밖의 여유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출국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주에서 양무리, 주보금, 사무엘 선교사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에 흥건히 젖는 예수님 닮은 선교사 되도록
2.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옥여쌈을 당한 위족을 불쌍히 여겨 참된 자유를 얻도록
3. T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안정되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4. 성령님의 역사로 T국의 영적이 변화가 일어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5. 선교지로 출국까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잘 준비하도록
6. 초심으로 나가는 저희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T국을 섬길 많은 동역자를 허락하시도록
7. 사무엘이 예수님 닮아가며 영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이랑학교에 잘 적응하며 배우도록

■연락처

바울선교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T.063-254-8418

양무리 : 010-7486-0092 주보금 : 010-9331-0920

E-Mail : mire1995@hanmail.net / melikekim@hanmail.net